

## 퀸즐랜드의 IMB컴과 프롤로 바이오텍, 테크놀로지 라이선스 비독점 계약 체결

【브리스번(호주)=BW/뉴시스】

IMB컴(IMBcom)은 프롤로 바이오텍(PROLOR Biotech Inc, 구명칭 모디진(Modigene Inc))이 퀸즐랜드 대학(UQ)의 인간성장호르몬 수용체세포주에 대한 비독점 라이선스를 발급받았다고 11일(현지시간) 발표했다. IMB컴은 퀸즐랜드 대학이 분자생명과학연구소(Institute for Molecular Bioscience, 'IMB')의 테크놀로지를 상용화하기 위해 설립한 회사다.

현재 인간성장호르몬 제조업체들에서는 중하수체를 제거한 쥐를 이용하여 효력을 시험하고 있다. 인간성장호르몬을 쥐에 주입한 뒤 쥐의 체중 및 대퇴부 길이 증가량을 측정함으로써 효력을 확인하고 있는데, 이 방식은 비용이 아주 많이 들 뿐만 아니라 결과도 일정치가 않다.

퀸즐랜드 대학의 세포주는 효력을 측정하거나 혈청 내 중화항체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분명한 장점이 있다:

1. 상당한 비용절감 효과 도출
2. 결과의 신뢰성과 일관성이 더 높음
3. 동물실험이 필요 없음

IMB컴의 최고경영자를 맡고 있는 피터 아이스데일 박사(Dr Peter Isdale)는 프롤로 바이오텍 같은 기업에 이 테크놀로지의 라이선스를 발급하게 되어 기쁘며, 다른 인간성장호르몬 생산업체도 프롤로 바이오텍의 뒤를 따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프롤로 바이오텍의 샤이 노빅(Shai Novik) 박사는 “퀸즐랜드 대학의 세포주가 활성화 시간을 연장한 자사의 인간성장호르몬(hGH)을 더 빨리 개발, 생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본다. 이 세포주는 호르몬의 효력을 측정하는 것 외에 hGH에 대항하여 작용하는 중화항체를 탐지하는 데도 이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 ▲ IMB컴에 대하여

IMB컴([www.imbcom.com.au](http://www.imbcom.com.au))은 퀸즐랜드 대학이 분자생명과학연구소(Institute for Molecular Bioscience, 'IMB')의 테크놀로지를 상용화하기 위해 설립한 회사다.

### ▲ 프롤로 바이오텍에 대하여

프롤로 바이오텍(PROLOR Biotech, Inc.) ([www.prolor-biotech.com](http://www.prolor-biotech.com))은 특허 기반의 자사 CTP 테크놀로지를 응용함으로써 치료용 단백질을 활성화 시간이 더 긴 자사 고유 버전으로 개발하고 있는 바이오제약회사다. 승인 취득을 마친 치료용 단백질은 현재 전세계에서 수십억 달러의 연매출을 창출하고 있다. 프롤로는 인간성장호르몬, 인터페론 베타, 에리트로포이에틴의 활성화 시간을 연장한 버전도 개발 중으로, 현재 후반 임상전 개발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본 보도자료는 해당 기업에서 원하는 언어로 작성한 원문을 한국어로 번역한 것이다. 그러므로 번역문의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서는 원문 대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처음 작성된 원문만이 공식적인 효력을 갖는 발표로 인정되며 모든 법적 책임은 원문에 한해 유효하다.]

### ▲ 연락처

IMB컴(IMBcom)  
 크리스토퍼 프라이스(Christopher Price), 61 (0) 409 000 887  
 상용개발 부사장

17/08/2009

000:00000

c.price@imbcom.com.au

또는  
프로로 바이오텍(PROLOR Biotech)  
샤이 노빅(Shai Novik), 972 866 644 7811  
Presidentshai@Prolor-biotech.com

기사등록 일시 : [2009-08-13 21:40:41] /newsis.com All rights reserved

Copyright© 2008 NEWSIS NEWS AGENCY 본사이트의 모든 기사 및  
이미지 등은 본사와의 계약없이 전문 또는 일부의 전재를 금합니다.

기사/사진 구매 : 콘텐츠 판매